

[특별기고]

세종과 집현전*

한 영 우**

1. 집현전의 유래와 부활
2. 집현전 학사의 기능과 활동
3. 〈훈민정음〉과 집현전
4.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이전에 창제되었다
5. 〈훈민정음〉 1차공표 후 집현전이 둘로 갈라지다
6. 세종 28년 제2차 공표와 『훈민정음해례』 검토
7. 제2차 공표 후의 『훈민정음』 사용, 『월인천강지곡』의 비밀
8. 〈훈민정음〉의 연원(뿌리): 아사달문화와 〈단군신화〉
9. 세종의 삼교통합과 〈10학〉의 실학
10. 〈훈민정음〉의 문자구조; 원방각(圓方角) 응용
11. 나가면서

1. 집현전의 유래와 부활

집현전은 본래 중국 당나라 때 설치한 기구로서 황제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서적을 편찬, 보관하고, 칙지(勅旨)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맡았던 학술자문기구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조선시대 학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집현'의 의미: 집현전 6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2020.11.27.~28.)의 기조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

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고려 인종(仁宗) 때로서 처음에는 연영전(延英殿)으로 불렀다가 뒤에 집현전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구체적 사업은 알 수 없으나, 김부식(金富軾), 윤언이(尹彦頤), 김인존(金仁存) 등 유학자들이 배출되어 북송대 유학이 크게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종때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궁중 임천각(臨川閣)에 보관된 서적이 수만 권이고, 숙유(宿儒)와 석사(碩士)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집현전에 소속된 도서관을 보고 한 말인 듯하다.

집현전은 무신란을 겪으면서 폐지된 가운데 조선왕조로 넘어왔다. 정종 때 조박(趙璞)의 건의로 정종 1년에 집현전이 설립되었으나, 다음 해 정종의 하야로 흐지부지되었다. 태종 10년과 17년에 사헌부에서 집현전을 활성화시켜 문풍을 진작시키자고 건의했으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세종 1년에 좌의정 박은(朴堧; 박상충의 아들)이 집현전 부활을 다시 건의했으나 대마도 정벌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세종 2년(1420) 3월에 드디어 설치되었다.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왕 태종과 합의하에 다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집현전의 직제는 2중 구조로 되었는데, 영사(領事: 정1품), 대제학(정2품), 제학(중2품)은 각기 2명씩 두되 일반 관료가 명예직으로 겸직했다.¹⁾ 그 아래 전문적으로 부제학(정3품), 직제학(중3품), 직전(直殿: 정4품), 응교(중4품), 교리(정5품), 부교리(중5품), 수찬(정6품), 부수찬(중6품), 박사(정7품), 저작(정8품), 정자(정9품)를 두었는데, 각 2명 이하를 두되 차례로 승진하게 했다. 이들을 학사(學士)로 통칭했는데, 정원은 22명이고, 문과에 급제한 우수한 젊은이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10명이었다가, 15명(세종 4), 16명(세종 8), 22명(세종 17), 32명(세종 17), 20명(세종 18 이후)으로 바뀌었다. 할 일이 많으면 늘리고 일이 줄면 인원도 줄였다. 세종 17년에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자치통감』과 『자치

1) 겸직을 맡은 사람은 좌의정 박은(朴尙衷 후손), 우의정 이원(李原; 李崧 후손), 대제학 유관(柳寬)과 변계량(卞季良; 권근 문인), 탁신(卓愼), 이수(李隨; 세종 스승) 등이었다. 실무직인 학사(學士)는 처음에 신장(申樞; 신숙주 부친), 김자(金赭), 김상직(金尙直), 어변갑(魚變甲), 설순(契詢; 위구르 귀화인), 유상지(兪尙智), 유효통(兪孝通), 안지(安止; 본관 탐진), 김돈(金墩; 김방경 후손), 최만리(崔萬理; 崔沖 후손) 등이었다.

통감강목』을 훈의(訓義)하면서 근 50명의 인원이 투입된 까닭이었다. 이 사업이 끝나자 20명으로 축소시켰다.

집현전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세종 8년에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시행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준 이후부터였다. 집현전이 폐지된 것은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뒤로서 37년간 존속했는데, 그 기간에 학사를 거쳐간 인물은 대략 70여 명에 이른다. 집현전이 폐지된 뒤에도 집현전 출신 학자들은 세조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역을 맡았으므로, 조선초기 국가통치질서를 확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엘리트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70여 명의 집현전 학사들의 가계를 보면 대부분 명문 후손들이지만, 의외로 신분이 한미(寒微)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²⁾ 세종이 능력을 존중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등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 집현전 학사의 기능과 활동

집현전 학사의 기능은 세종 10년 무렵까지는 주로 임금, 세자, 종친의 교육기능을 맡았다. 학사의 절반인 10명은 임금의 경연(經筵)에 경연관으로, 나머지 절반 10명은 세자의 서연(書筵)에 서연관으로 참석하여 학술을 강론했다. 그러나 세종의 학문이 높아서 임금을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

또 춘추관의 사관(史官)이 부족하자 사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종학(宗學)이 설치된 뒤에는 교관으로 참석하여 종친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밖에 중국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사신들을 접대하고,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는 지제조(知製敎)를 맡고, 과거시험의 시관(試官)으로도 참여했다. 경복궁의 문 이름도 대부분 이들이 지었다.

2) 예를 들면, 안지(安止: 탐진), 김말(金末), 김문(金汶: 무당 아들), 김구(金鉤: 가난), 이선로(李善老: 家奴), 이선(李宣: 서출), 설순(偈循: 귀화인), 김상직(金尙直), 그리고 한처령, 한혁, 김문효, 전순, 이보흠 등이 그렇다.

세종은 중요한 제도를 개혁할 때에는 상정소(詳定所)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대신들이 합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는데, 대신들과 의견이 다를 때에는 집현전에 명하여 고제(古制)를 연구하여 보고하라고 하여 그 의견을 따라 결정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대신들의 반대를 막는 방패막이로 삼았다. 고제(古制) 연구는 바로 사서(史書)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제로 학사들의 주된 일은 사서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세종 10년 이후로는 세종의 정치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왕명에 따라 여러 가지 편찬사업에 학사들이 참여했다. 세종 10년 이후 이루어진 편찬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책의 종류와 참여한 학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역사분야(歷史分野):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 『고려사대전』(高麗史大全), 『역대세년가』(歷代世年歌), 『동국세년가』(東國世年歌),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자치통감망목훈의』(資治通鑑綱目訓義),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치평요람』(治平要覽), 『명황계감』(明皇戒鑑) 등

• 참여학사: 정인지(鄭麟趾), 권제(權躋), 권채(權採), 안지(安止), 설순(契循), 이선(李宣), 김돈(金墩), 휴효통(兪孝通), 남수문(南秀文), 최만리(崔萬理), 안완경(安完慶), 김말(金末), 김문(金汶), 김조(金鈔; 金鑣), 김신민(金新民), 유의손(柳義孫), 이계전(李季甸), 신석조(辛碩祖), 최항(崔恒), 이사철(李思哲), 박팽년(朴彭年), 이영서(李永瑞), 전순(全淳), 이보흠(李甫欽), 조석문(曹錫文), 정창손(鄭昌孫), 송처검(宋處儉) 등

(2) 경학분야(經學分野): 『사서언해』(四書諺解): 미완

• 참여학사: 김말(金末), 김문(金汶), 김구(金鉤) 등

(3) 법제분야(法制分野): 『대명률언해』(大明律諺解: 세종 14), 『오례의주해』(五禮儀註解: 세종 26)

• 참여학사: 집현전에서 작업, 하위지(河緯地), 서거정(徐居正) 등

(4) 무학(武學) 및 병서(兵書) 분야: 『역대병요의주』(歷代兵要儀註), 『총통등록』(銃筒騰錄), 『동국병감』(東國兵鑑)

• 참여학사: 김구, 김말, 서거정

(5) 천문분야(天文分野):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기타 각종 천문기구에 대한 명문(銘文), 발문(跋文) 등

• 참여학사: 김돈, 정인지, 김담(金淡), 김조(金鈔)³⁾

(6) 의약분야(醫藥分野):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의방유취』(醫方類聚)

3) 세종 13년 3월에 임금이 김조에게 산법(算法)을 배우게 하라고 명하다.

- 참여학사: 권채, 유효통, 김예몽(金禮蒙), 유성원(柳誠源), 김문, 신석조(辛碩祖), 이예(李芮), 김수온(金守溫), 이사철, 한계희(韓繼禧)
- (7) 언해분야(諺解分野): 『동국정운』(東國正韻), 『용비어천가』, 『사서언해』, 『찬불가시』(讚佛歌詩: 月印千江之曲?)
- 참여학사: 정인지, 안지, 권재, 최항,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강희안, 김수온(金守溫)
- (8) 윤리분야(倫理分野):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충신록』(忠臣錄) 등
- 참여학사: 설순, 권채
- (9) 음악분야(音樂分野): 『아악보』(雅樂譜)
- 참여학사: 정인지
- (10) 풍수(風水) 및 지리분야(地理分野):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 세종 14),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 참여학사: 신장(申穡), 정인지, 권채, 양성지(梁誠之) 등
- (11) 불교분야(佛敎分野): 『찬불가시』(讚佛歌詩: 月印千江之曲?)
- 참여학사: 김수온

이상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하여 이룩한 편찬사업을 보면,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유학(儒學)과 관련이 적은 사학(史學), 음운문자학(音韻文字學), 의학(醫藥), 병학(兵學), 음악(音樂), 천문(天文), 지리(地理), 불교(佛敎) 등 이른바 잡학(雜學)에 관한 사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은 사학(史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유학에 관한 것은 『사서언해』(四書諺解)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착수는 했으나 완성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집현전은 유학 발달을 위해서 만든 기구는 아니다.

3. <훈민정음>과 집현전

집현전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집현전이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증거가 없다. 성종-연산조 때 성현(成愼: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세종이 언문청(諺文廳)을 세우고,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명하여 언문을 창제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다. 언문청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신숙

주와 성삼문 등이 〈훈민정음해례〉에 참여하고, 『동국정운』을 편찬한 것을 창제로 오해한 것이다.

집현전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면 집현전 최고 수장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1398-1445: 47세)가 학사 5인의 동의를 얻어 그토록 극렬한 반대상소를 올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임금은 이들을 모두 의금부에 가두고 형벌을 내렸다가 다음날 풀어주었다. 그러나 정창손(鄭昌孫)은 관직을 삭탈하고, 김문(金汶)은 의금부에서 곤장까지 맞았다.

특히 최만리 상소 가운데 “신하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오랑캐문자를 만들었다”고 항의한 대목은 집현전이 철저히 〈훈민정음〉 창제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집현전과 미리 상의했다면, 애당초 〈훈민정음〉은 창제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영특한 27세의 둘째 딸 정의공주(貞懿公主, 1415~1477)와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廣平大君: 1425-1444)⁴⁾의 도움을 받아 밀실에서 창제한 정황이 많다.⁵⁾ 세종 23년에 임금은 두 사람의 집을 수차례 거동한 사실이 『실록』에 보이는데,⁶⁾ 임금의 행차는 반드시 그 이유를 『실록』에 밝히고 있는데, 유독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한 사실만은 아무런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정의공주가 참여한 사실은 남편 안맹담(安孟聃)의 『죽산안씨대동보』(竹山安氏大同譜)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변음토착(變音吐着)이 풀리지 않아 고민하다가 공주에게 맡겼더니 공주가 풀어내어 임금이 너무 기뻐서 노비 수백 명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사실로 보아야 한다.⁷⁾ 〈훈민정음〉을 가장

4) 광평대군은 세종 24년 당시 19세였으나 매우 영특하여 사서삼경에 능통하고 음률(音律)과 산수(算數)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산수는 곧 역학(易學)이다.

5) 한영우, 2019 『세종평전: 대왕의 진실과 비밀』, 경세원 참고.

6) 세종이 정의공주 집을 방문한 것은 세종 23년 9월 6일과 9월 24일 두 차례인데 며칠간씩을 숙박하고 돌아왔다. 한편 광평대군 집에는 세종 23년 윤11월 16, 22, 23, 25, 27, 28일, 그리고 12월 1일 등 모두 일곱 차례나 다녀왔다.

7) 세종은 재위 23년 9월에 정의공주 집에 가서 며칠간 숙박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사위 안맹담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중대한 일을 함부로 거짓말로 『족보』에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믿을 수 없는 기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의공주는 역산(曆算: 易學)에 뛰어나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어 『지장보살본

환영한 것은 특히 한자문화에서 소외된 여성이므로 정의공주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8자를 만들 때 그 소리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중에 가서 각종 소리를 채취해야 했을 것이고, 그런 조사는 여성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

4.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이전에 창제되었다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12월 30일에 “이달에 창제되었다”고 공표(公表)했으나, 어떻게 한달만에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언제 창제되었나? 세종은 〈훈민정음〉을 신하들과 상의하거나 조력을 받지 않고 밀실에서 가장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녀 몇사람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뒤에도 그 창제과정을 공표한 일이 없다. 〈훈민정음〉의 해례도 자신이 쓰지 않았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정체는 깊은 안개 속에 파묻힌 보석처럼 아직도 그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완전범죄를 파헤치는 수사관의 심정으로 조그만 힌트와 실마리라도 찾아서 추적하다 보면 그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은 마치 소설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아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일찍부터 구상하고 있었을 터이지만, 특히 재위 23년-2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창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세종은 병을 이유로 거의 정사(政事)를 포기하고 세자에게 권력을 상당 부분 이양하고 세 차례나 온천 목욕을 다녀왔다.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휴양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눈병이 목욕으로 치료되는지는 의문이다. 온천행차는 〈훈민정음〉 창제를 위한 피신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이 재위 24년 8월에 병을 이유로 권력을 세자에게 이양하려고 할 때 대신들은 한사코 만류했다. 눈병 정도로 권력을 이양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

원경』(地裝菩薩本願經)을 간행하기도 했으므로 충분히 임금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문이다. 그러자 임금은 “경들은 상밀(詳密; 자세하고 비밀스러움)한 뜻을 모르고 한갓 유자(儒者)들의正大(正大)한 말만 가지고 와서 말할 뿐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유신들의 말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임금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뜻을 모르고 있다고 한탄하는 말이다. 그 “자세하고 비밀스런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 시기에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에 박차를 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명나라 영종 정통제(英宗 正統帝)가 친정(親政)을 하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영종은 세종 17년에 9세로 등극하여 황태후와 황후가 섭정했는데, 조선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세종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통제가 즉위한 뒤로 흉년이 잇달아 계속되어 <훈민정음> 창제에 몰입할 겨를이 없었다.

또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에 몰입하려면 권력을 세자에게 상당부분 이양하고 자유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39세의 한창 나이로 건강도 좋았기 때문에 세자[문종]나 그밖의 대군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훈민정음> 창제에 몰입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또 아직 세자의 나이가 어려서 권력을 이양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종 23년에는 세자가 이미 28세가 되었으므로 권력이양이 가능했다.

세종 23년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영종이 15세가 되어 곧 친정이 가능했고 머지않아 조선에 대한 간섭이 차차 심해질 것이 예상되었다. 독자적인 문자를 갖는 것은 <서동문 차동궤>(書同文 車同軌)를 지켜야 하는 명나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종 24년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훈민정음>을 세종 25년 선달그믐날을 기하여 제1차로 공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이미 세종 24년초에 시작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편찬을 세종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언해(諺解)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처음부터 『용비어천가』의 국문언해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다. 조상의 음덕을 찬양하는 책을 최초의 언해본으로 출간한다면 세종으로서 얼마나 조상에 대한 자랑스런 효도이겠는가?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 봄에 완성되자 바로 세종 자신이 노래로 지어 관현

악으로 연주하고, 세종 29년 가을에 550부를 목판으로 간행하여 널리 반포했다.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간행한 것은 출판사상 처음이다. 세종이 이 책에 얼마나 큰 애정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종 25년에 공표할 때 하필 선달 그믐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임금의 중요한 정사를 연말에 발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날을 택한 것은 <훈민정음>을 공표하는 일이 마치 큰 폭탄을 터뜨리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고 올 후폭풍을 어찌 감안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선달 그믐날은 후폭풍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 다음날부터 새해 원단이 시작되는데, 적어도 1월 한 달은 폭풍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5. <훈민정음> 1차공표 후 집현전이 둘로 갈라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도 힘들었지만, 이를 공표하는 일도 힘들었다. 명나라와 모화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에 밀실에서 만들었으므로 이를 갑자기 세상에 공표한다면 그 충격과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훈민정음> 창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발표했다. 그래서 그 발표시기, 발표내용, 훈민정음을 이용한 첫사업 등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우선 공표시기를 세종 25년 선달 그믐날로 잡은 것이 그 하나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다. 임금은 이 기간에 학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둘째, <훈민정음> 공표문(公表文)을 반대자의 반발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완곡하게 만들었다. 그 발표문을 살펴보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했다. 이를 초성(初聲), 중성(中聲), 종성(終聲)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합치면 글자가 된다. 무릇 문자(文字: 한자)에 관한 것과 우리나라의 이어(俚語: 토속어)에 관한 것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지만,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다. 이를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우선 이 공표문은 “이달에 만들었다”는 것부터 거짓이고, 내용도 너무나 간단하다. 이 공표문은 세종 28년 9월에 발표한 세종의 어제(御製)나 정인지(鄭麟趾)가 쓴 해례(解例) 〈서문〉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훈민정음〉이 한자의 뿌리인 전자(篆字)를 모방했고, 한자에 관한 것을 기록[번역]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언문(諺文)이라는 말을 맨 앞에 드러내고,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맨 뒤에 언급했다. 얼마나 계산된 공표인가.

이 글을 보면, 〈훈민정음〉이 “백성을 위한 상용글자”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의 감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고전〉을 모방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훈민정음〉을 닮은 전자(篆字)는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언문〉이라는 말을 맨 앞에 내놓은 것도 의도적이다. 따라서 이 글이 세종의 진의(眞意)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로 고려한 충격완화제는 다음 해인 세종 26년 2월 16일에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을 제1차 언해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펼친 일이다. 이는 일부 학사들을 회유하고, 반대파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국정운』은 중국 한자사전인 『홍무정운』(洪武正韻)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한 최초의 중국어 발음사전이다.

이 사전은 중국어를 바르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지만,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 이 책을 가장 먼저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세종이 평소 역관(譯官)들의 어학 수준이 낮은 것을 개탄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더욱이나 첫 언해사업이 되어야 할 만큼 긴급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은 마치 이 책을 만들기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에게 책임을 맡기고, 실무진으로 집현전 교리(정5품) 최항(崔恒; 1409-1474; 36세),⁸⁾ 부교리(종5품) 박팽년(朴彭年; 1417-1456; 28세),⁹⁾ 부수찬(종6품) 신숙주(申叔舟; 1417-1475; 28세),¹⁰⁾ 부수찬 이선로(李

8) 최항은 본관이 삭령으로 지승문원사 최사유(崔士柔)의 아들로서, 세종 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

9) 박팽년은 본관이 순천(順天)으로 대제학 박중림(朴仲林)의 아들이다. 세종 16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집현전에 들어갔다.

10) 신숙주는 본관이 고령(高靈)으로 집현전 학사 신장(申樞)의 아들이다. 세종 21년에 문과

홍찰(安平大군 家奴),¹¹⁾ 이개(李垚; 1417-1456; 28세),¹²⁾ 강희안(姜希顔; 1418-1464; 27세)¹³⁾ 등 6인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들을 최고로 우대하고 상을 후하게 내리면서 학사들을 우대했다.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한 학사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도 흥미롭다. 참여한 학사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로서 세종과 맞설만한 힘도 없었으려니와 신숙주는 아버지 신장(申樞)도 학사였고, 강희안은 세종이 이모부였으며, 이선로는 안평대군의 가노(家奴) 출신으로 세종이 특별히 총애하여 벼슬길을 열어준 터였다. 그러니 이들이 세종의 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개는 이색(李穡)의 후손이고, 친척 이계전(李季甸)을 비롯하여 여러 친족들이 벼슬하고 있던 처지였으니 세종의 음덕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 이들은 <훈민정음>을 반대할 처지에 있지 않았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공표한 직후부터 위 학사들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동국정운』 편찬사업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집현전의 모든 학사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집현전 수장인 최만리(崔萬理)를 비롯하여 정창손(鄭昌孫; 1402-1487; 43세),¹⁴⁾ 김문(金汶; ?-1448)¹⁵⁾ 등 중견 학사들과 하위지(河緯地; 1412-1456; 33세),¹⁶⁾ 송처검(宋處儉; ?-1459),¹⁷⁾ 조근(趙瑾;

에 급제한 뒤에 집현전에 들어갔다.

- 11) 이선로는 안평대군 가노였다가 세종 2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 뒤에 강흥이씨(江興李氏) 시조가 되었다.
- 12) 이개는 이색(李穡)의 증손자이자 이종선(李種善)의 손자이다. 세종 18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집현전에 들어갔다.
- 13) 강희안은 강희백(姜淮伯)의 손자이자 강석덕(姜碩德)의 아들로서, 세종이 이모부이다. 세종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
- 14) 정창손은 본관이 동래(東萊)로 중추원사 정흠지(鄭欽之)의 아들이고, 청백리 정갑손(鄭甲孫)의 아우이다. 세종 8년에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로 들어갔다. 벼슬이 성종때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 15) 김문은 어머니가 무당으로 신분이 한미하며,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세종 2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경학이 높아 뒤에 성균관의 대사성을 지내면서 유생들에게 유학을 가르친 인물이다. 김반(金泮), 김말(金末)과 아울러 <관학삼김>(館學三金) 가운데 한 사람이다.
- 16) 하위지는 벼슬아치 집안 후손으로 세종 20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 학사로 발탁되었다가 뒤에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다.
- 17) 송처검은 본관이 청주(淸州)로 수령을 지낸 집안의 후손이다. 집현전 학사이며 사육신의

1417-1475; 28세)¹⁸⁾ 등 일부 젊은 학사들이 반대파에 참여했다.

특히 김문은 <훈민정음> 창제를 찬성한다고 임금에게 말했다가 반대파로 돌아서고, 정창손은 임금이 “『삼강행실도』를 언문으로 번역하면 효자, 충신들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의견을 물었더니, 정창손은 “『삼강행실도』를 언해한다고 효자, 충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고 하면서 반대하여 임금을 크게 실망시켰다. 세종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속유(俗儒)들”이라고 악평했다.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반대파들의 탄핵상소가 터졌다. 세종은 태도를 바꾼 김문은 의금부에 하옥시켜 곤장을 때리고, 정창손은 파직시켰다. 그밖의 동조자인 하위지, 송처검, 조근 등은 나이도 어리고 직위도 낮아서 주범(主犯)으로 여기지 않고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곧 풀어주었다. 집현전이 이제 두 파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최만리의 반대상소 내용은 어떠한가? 그 상소문의 요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언문> 창제는 <서동문 차동궤>(書同文 車同軌), 즉 중국의 문자와 제도를 따라야 하는 사대명분에 어긋난다.
- (2) 몽골, 서하, 여진, 일본, 티베트 등 오랑캐만이 고유 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오랑캐의 길을 가고 있다.
- (3) 언문은 이두(吏讀)만도 못하며, 한문과 성리학(性理學)의 기피를 가져온다.
- (4) 언문은 기이한 기예(技藝)에 지나지 않아 학문과 정치에 해롭다.
- (5) 언문을 쓴다고 형옥(刑獄)이 공평해지지 않는다.
- (6) 백관의 여론을 듣지도 않고 갑자기 만든 것은 잘못이다.
- (7) 10여명의 아전들에게 갑자기 배우게 하는 것도 잘못이다.
- (8) 중국의 운서(韻書)를 급하게 고치고 번역하기 위해 임금의 건강을 해치고 있

한 사람인 성원(柳誠源)은 그의 매부이다. 세종 1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으로 들어갔으며, 세조 5년에 대사헌으로 일본 통신사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 한상질(韓尙質)은 고모부이며, 공조판서 송처관(宋處寬; 1410-1477)은 그의 형이다.

- 18) 조근은 세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조말생(趙末生)의 아들이다. 조말생은 수많은 뇌물을 받은 장죄(贓罪)를 지어 세종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며, 세종은 그를 기피하여 정승 자리를 주지 않았다. 그 아들 조근은 세종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 들어갔다가 성종 때 벼슬이 형조참의(정3품)에 올랐다.

다는 것

(9) 성학(聖學: 성리학)을 배워야 할 세자에게 『운서』 번역을 맡겨 정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

위 반대 상소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과 (2)이다. 중국 문화를 따라야 하는 사대명분(事大名分)에 어긋나고 오랑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갈라놓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최만리의 주장이 옳지만, 세종은 바로 그런 세계관을 거부하기 위해 <우리글>을 만든 것이다.

세종은 명나라에 사대(事大)를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명나라를 멸시하고 사대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여겼고,¹⁹⁾ 우리나라가 예부터 중국에 사대한 나라로 보지도 않았다. 또 중국에 조공(朝貢)을 바친 나라들이 문자를 가졌다는 생각에서 그들을 오랑캐로 여긴 것도 아니었다.

세종은 최만리 상소를 보고 중국을 배반하고 오랑캐 길로 간다는 대목은 반박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하고, 또 운서(韻書)를 바로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을 배반한다는 말이나 오랑캐가 된다는 말은 가장 아픈 데를 찌른 것이지만 차마 공개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훈민정음>을 둘러싼 집현전과의 갈등은 이것으로 일단락되고, 대부분의 학사들은 세종의 노선을 따랐다. 다음 해인 세종 27년에 반대파의 우두머리인 최만리마저 세상을 떠나자 반대파는 더욱 힘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세종의 불사(佛事)에 학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세종은 이들을 <더벅머리 유신들>이라고 또 다시 혹평했다.

세종 말년은 이렇게 세종이 그토록 애써 키워놓은 집현전 학사들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렸다. 유학의 규범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학사들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임금의 뜻은 이렇게 서로 어긋났다.

19) 세종은 명나라를 굽지 않게 보고 멸시했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황제가 권력을 독재하고 신하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정치, 둘은 무식한 환관들에게 실권을 맡기고, 이들을 사신으로 보내 조선을 착취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점, 셋은 조선의 여인을 공녀(貢女)로 데려가서 후궁을 삼았다가 황제가 죽으면 모두 목매달이 죽여 순장시킨 것, 조선의 여인을 음식을 만드는 집찬녀(執饌女)와 노래부르는 창가녀(唱歌女)로 데려간 것 등이다. 그러면서 세종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중국보다 문화수준이 더 높다고 자부했다.

6. 세종 28년 제2차 공표와 『훈민정음해례』 검토

세종 28년 9월 29일에 세종은 <훈민정음>을 다시 정식으로 공표했다. 이제는 반대자들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제>(御製)를 발표하고, 『동국정운』 편찬에 참여했던 학사들과 함께 의논하여 정인지(鄭麟趾)가 <훈민정음>을 해례(解例)하는 서문(序文)을 썼다. 이로써 집현전 학사들은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을 해설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으나 사실은 <훈민정음>의 본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해례>를 쓰지는 못했다.

그러면 세종 28년에 제2차로 공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훈민정음>을 세종 25년에 1차로 공표한 것은 세종의 진심을 담은 것이 아니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임시변통일 뿐이었음을 앞에서 말했다.

그 뒤로 집현전 출신이었던 정인지, 권제(權躋)와 안지(安止) 등이 본문을 작성하고, 『동국정운』 편찬을 명받은 박팽년, 강희안, 이선로[이현로], 성삼문, 그 밖에 신영손(辛永孫) 등이 『용비어천가』를 언해하고,²⁰⁾ 동시에 『동국정운』 편찬 사업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에 먼저 편찬되고, 『동국정운』은 세종 29년이 뒤늦게 편찬되었다. 세종이 의도한대로 『용비어천가』를 먼저 편찬한 것이다.

그런데 세종 26년 12월부터 28년 3월 사이에 세종은 뜻하지도 않게 가족 3명을 잇달아 잃는 불운을 맞이했다. 광평대군(제5자; 20세), 평원대군(제7자; 19세) 그리고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가 세상을 떠났다. 이 일로 세종의 건강이 갑자기 크게 악화되면서 세자에게 권력을 거의 이양하고 궁밖에 거처하면서 중요사건만을 결재하고 있었다. 손이 떨리는 수전증과 정서불안정이 극도에 달했다.

세종 28년 9월은 왕비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다. 이때 <훈민정음> 창제를 다시 공표한 것은 임금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음> 창제 진의(眞意)를 임금이 직접 밝히고, 나아가 <훈민정음>에 대한 해례(解例)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일상

20) 『용비어천가』의 본문은 권제와 안지 등이 집필하고, 그 본문에 대한 주석(註釋)은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성삼문, 이개, 신영손 등이 맡았다.

적인 문자로 널리 보급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언해(諺解) 차원에서 벗어나 상용문(常用文)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때 세종이 쓴 어제(御製)는 널리 알려져 있어 상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모든 백성을 위한 일상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나서, 28자의 발음을 설명하고, 발음기관에 따라 소리가 아음(牙音), 순음(唇音), 설음(舌音), 치음(齒音), 후음(喉音) 등 다섯 종류로 갈린다고 언명했다. 언문(諺文)이라는 표현과 고전(古篆)을 모방했다는 <1차공포> 때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비로소 세종의 진심을 담은 것이다.

그런데 <정음>에 대한 <해례>는 정인지 등이 세종의 구술(口述)을 받아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서문>만 보이고, <해례>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목판본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가 그때 간행된 것인지 의문이다. 책으로 간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보일 것인데 기록이 없다.

또 지금 전하는 『훈민정음해례』에는 정인지가 쓴 서문의 날짜가 <구월상한>(九月上澣)²¹⁾으로 되어 있어서 『실록』의 날짜보다 20여 일이 앞선다. <구월하한>(九月下澣)으로 써야 할 것을 <구월상한>으로 잘못 쓴 것이다. 만약 9월 상한에 쓴 것이 사실이라면, 임금이 공표하기도 전에 어떻게 신하가 서문(序文)을 먼저 쓸 수가 있는가? 세종때 출판된 책이라면 이런 착오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세조 2년 4월에 예조에서 올린 상소문을 보면, 역어(譯語) 발전을 위해 나이 어린 문신과 의관자제(衣冠子弟)를 뽑아서 『증입언문』(增入諺文)과 『홍무정운』(洪武正韻)²²⁾을 가르치자고 한 대목이 보인다. 여기서 『증입언문』이 무슨 책인지 확실치 않으나 『해례』를 가리키는 것 같다. 또 그것이 책으로 간행된 것인지 아니면 필사본인지도 정확하지 않다. 다만 이 무렵에는 이미 『해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판본 『해례』의 정체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어쨌든 세종이

21) 지금 전하는 『훈민정음해례』를 보면, 정인지가 <서문>을 쓴 것은 이 해 <구월상한>(九月上澣)으로 되어 있다. <상한>은 1일에서 10일까지를 가리키므로 9월 초순에 썼다는 뜻이다. 『실록』에 실린 9월 29일보다 약 20여일이 앞선다.

22) 여기서 『홍무정운』(洪武正韻)은 이를 언해한 『동국정운』(東國正韻)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떠난 뒤에 간행되었다면, 그 책이 세종의 뜻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더욱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정인지가 쓴 <해례서문>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요지를 추려서 정리하면, (1) 훈민정음은 삼재(三才: 天地人)의 도(道)를 담았다. (2) 글자의 형태는 <상형>(象形)을 본떴는데 고전(古篆)을 모방했다. (3) 소리는 칠조(七調: 궁상 각치우)와 맞고, 삼극(三極: 천지인)의 뜻과 이기(二氣: 음양)의 오묘함이 담겨 있다. (4) 한자의 운(韻)을 가려내고, 죄인을 다스릴 때 도움이 된다. (5)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 (6) 신들이 <해례>를 지어 그 대강을 밝혀 놓았으나, 그 연원(淵源)과 정의(精義)가 지닌 오묘함은 신들이 능히 밝혀낼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위 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글자구조가 상형(象形)을 본따고, 고전(古篆)을 모방했다는 것과, 삼재(三才: 천지인)의 도(道)와 이기(二氣: 陰陽)의 오묘함을 담고 있으나, 그 연원(淵源)과 정밀한 뜻은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은 <해례> 자체가 미흡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또 상형(象形)과 전자(篆字)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상형이란 역학(易學)에서 하늘의 양(陽)이 만든 다섯 별, 곧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을 5상(五象)으로 부르고, 땅의 음(陰)이 만든 수화목금석(水火木金石)을 5형(五形)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상형은 5행(五行)을 가리키는데, <훈민정음>의 문자구조가 5행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또 옛 전자(篆字)를 모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훈민정음>을 닮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상형문자인 갑골문(甲骨文)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훈민정음>은 갑골문과는 전혀 다르다.

정인지가 말한 <고전>(古篆)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오던 원방각도형(圓方角圖形: ○ □ △)을 그렇게 부른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도형을 전자로 부른 일은 없다. 일제강점기 대중교인들은 고조선때 만든 38자의 <가림토>(加臨土)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서(僞書)이다.²³⁾ 원방각에 대해서

23) 일제강점기의 대중교인들은 단군조선 제3대왕 가록(加勒) 때 38자의 <가림토>(加臨土)

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그런데 현존하는 『해례』를 보면 초성자(初聲字)의 모습과 발음이 발음기관을 닮았다고 하고, 또 오행(五行)을 닮았다고 하고, 중성자(中聲字)는 천지인(天地人)의 도형(圖形)에서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람을 각(角: △)으로 보았다는 말은 없다. 또 밝은 중성자[나, ㄱ 등]와 어두운 중성자[ㄴ, ㄷ 등]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태양이 사람[]의 동쪽에서 만나느냐 서쪽에서 만나느냐, 땅 위에서 만나느냐 땅 아래에서 만나느냐로 해석하면 밝음과 어둠을 금방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례』는 그런 해석이 없다. 이런 약점 때문에 『해례』는 <훈민정음>의 정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7. 제2차 공포 후의 『훈민정음』 사용, 『월인천강지곡』의 비밀

세종 28년 9월 29일에 제2차로 <훈민정음>을 공포한 세종은 <훈민정음>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해 10월 1일에는 임금의 불사(佛事)를 반대하는 언관(言官)들을 벌주기 위해 언문으로 쓴 <유시>(諭示)를 승정원과 의금부에 내렸는데, 그 유시에다 언관들의 죄명을 자세히 나열했다. 세종은 그 뒤에도 <언문유시>를 몇차례 더 내렸다.

그 <언문유시>는 뒤에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그 원문이 실리지 않았지만, 임금이 언문으로 유시를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대사건이다. <언문유시>는 <한자유시>보다 감정표현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임금이 직접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선례(先例)를 보이기 위함인 듯하다.

세종은 또 이해 11월에 궁궐 안에 언문청(諺文廳)을 설치하여 언해사업의 중심 기관으로 삼았으나 실제로 여기서 무슨 언해사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세종은

라는 태고문자(太古文字)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알렸다. 그 모습이 훈민정음과 매우 비슷하다. 이 문자는 고려말 행춘 이암(李岳)이 지었다고 하는 『단군세기』(檀君世紀)에 보이는데 위서(僞書)로 보인다.

〈사서언해〉(四書諺解)를 명했으나 편찬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세종은 언해사업보다는 국가행정에서 〈정음〉 사용을 제도화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세종 28년 12월에는 아전들의 시험에 〈훈민정음〉을 넣도록 하고, 함경도 아전들에게도 〈훈민정음〉을 먼저 시험하라고 명했다. 이는 여진문제를 의논할 때 적들이 모르게 하려는 배려로 보인다.

세종은 재위 29년에 세자를 교육하는 시강원(侍講院)에서 〈훈민정음〉과 의서(醫書)를 가르치기 위해 10명의 시강관 가운데 4명을 여기에 배당했다. 이를 보면 세자[문종]는 당시 〈훈민정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듯하다. 세종 30년에는 8세 된 세손[단종]에게도 박팽년을 시켜 〈훈민정음〉을 가르쳤다. 후대 왕들이 반드시 〈훈민정음〉을 배워 퍼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다.

끝으로, 세종이 지었다고 알려진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석보상절』(釋譜詳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석가의 일생을 언문으로 찬양한 〈찬불가시〉(讚佛歌詩)인데, 세종의 작품으로 보는데 의문이 있다. 뒷날 세조가 세종이 지은 것이라고 말하여 그 말이 정설이 되었으나, 『세종실록』에는 『월인천강지곡』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 대신 세종 28년 12월 2일에 부사직 김수온(金守溫)에게 『석가보』(釋迦譜)를 증수(增修)하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석가보』는 세종 초기에도 있던 책으로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본이고, 또 세종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김수온에게 이때 증수하라고 한 것은 『석가보』를 한문으로 더 증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언해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세종이 불서(佛書)를 언해하라고 직설적으로 명했다면 아마도 신하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 무렵 대군들이 불서(佛書)를 금자(金字)로 필사하게 했는데, 신하들이 크게 탄핵하고 나섰다. 그런데 여기에 불서를 언해하라고까지 명했다면 신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완곡하게 〈증수〉(增修)하라고 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김수온이 왕명으로 증수한 책은 어떤 이름으로 편찬되었는가? 그러나

그가 지은 책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뒷날 세조는 임금인 된 뒤에 자신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지어서 세종에게 올렸더니, 세종이 이에 호응하여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고 말했다. 김수온이 편찬한 책은 사라져 버리고, 세종과 수양대군이 지었다는 두 책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 세조의 그 말이 사실일까?

그런데,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세종 31년 2월 25일자 『세종실록』을 보면, 궁궐 뒤에 불당(佛堂)을 짓고 경찬회(慶讚會)를 열 때 불교도인 집현전 학사 출신 김수온(金守溫)이 『찬불가시』(讚佛歌詩)를 지어 불교를 넓히고, 악공(樂工)들을 시켜 『찬불가시』를 음악으로 연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렇다면 김수온이 지은 『찬불가시』는 『월인천강지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이 바로 『찬불가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월인천강지곡』이 세종의 왕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조가 세종이 지었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김수온 작품이다. 세종이 말년에 불교를 얼마나 숭상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또 수양대군이 지었다고 하는 『석보상절』도 실제로는 김수온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석가보』를 언해하여 크게 증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조는 왜 『석보상절』을 자신이 지었다고 말했을까? 아마도 수양대군이 김수온에게 지으라고 부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세종 말년에 불사를 크게 일으킨 실질적인 주역은 수양대군으로서 김수온, 그리고 안평대군이 한몫처럼 움직였다. 안평대군은 세조에 대한 반역죄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조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세조 5년에 세조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편집하여 합쳐서 『월인석보』(月印釋譜)라고 불렀는데, 이 책을 선사(繕寫)한 사람도 김수온과 성임(成任)이었다. 여기서 <선사>했다는 것은 그저 필사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김수온이 이 일을 맡고, 성임은 그저 필사만 한 것으로 보인다. 성임은 불교에 조예가 거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²⁴⁾

24) 세종 말년에 불사를 크게 일으킬 때 수양대군은 성임을 보고 “석가의 가르침은 공자의

그렇다면, 세조가 왕명으로 『월인석보』를 만들면서, 그 속에 담긴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모두 김수온이 지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의 명으로 만든 것은 세종이 편찬한 것으로, 수양대군이 부탁하여 만든 책은 세조 자신이 편찬한 책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8. <훈민정음>의 연원(뿌리): 아사달문화와 <단군신화>

앞서 살폈듯이 정인지가 <해례>를 쓰면서 두 가지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실트한 것이 있다. 하나는 글자의 생김새가 상형(象形)이라고 하면서 고전(古篆)을 모방했다고 하여 애매하게 말했고, 또 하나는 천지인(天地人)과 음양(陰陽)의 이치가 오묘하지만 그 연원(淵源: 뿌리)과 세밀한 뜻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위 두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인지가 알고서도 일부러 모호하게 말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인지의 말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 <훈민정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도형(圖形)을 참고했는데, 그 도형이 천지인(天地人)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을 담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인지는 그 도형과 철학이 유교경전에 서 보이는 것들과 다르고, 또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상형(象形)이니 고전(古篆)이니 하는 모호한 말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후세 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말에 현혹되어 <태고문자>(太古文字)니, <범자>(梵字)니, <과스파문자>를 모방했다는 설 등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종은 예부터 한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박고 내려온 원방각(圓方角; ○□△) 문화를 응용한 것 뿐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사람은 삼각형으로 생각하고, 천지인은 모두 음양오행이라는 물질[氣]로 이루어진 생명체로서 <천지인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

가르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높다”고 말하자, 성임은 “나는 공자의 가르침은 배웠으나 석가의 가르침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성임이 불서를 편집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태양]에 대한 축제를 올려 하늘과 하나가 되면 우주의 기(氣)가 모두 합쳐져 엄청난 <생명력>, 곧 <에너지>가 발산하는데, 이를 <신바람>으로 불렀다.

그 신바람에서 발산되는 행동이 <춤>, <노래>, <해학>이고, 그 마음이 <낙천성>(樂天性)이다. 이는 한국인의 국민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탄생, 발전, 소멸, 재생하는 순환적 운동법칙을 그림과 수학으로 설명한 것이 <역괘>(易卦)이다. 이 문화가 바로 한국인들이 태고로부터 전승시켜온 종교, 철학, 예술, 풍속이었으며, 문화적 유전인자[DNA]로 굳어졌다.²⁵⁾

<천지인합일>과 <음양오행> 사상은 중국인들이 동이족(東夷族)으로 부른 <아사달족>의 복희(伏羲)가 그 창시자였다. <아사달족>은 발해만 연안의 산둥, 요서, 요동, 한반도에서 수많은 국가를 세웠는데, 대부분 중국에 흡수되었지만, 그 문화가 중국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자(孔子)의 유교도 그 뿌리는 산둥지방의 <아사달문화>에 주(周)나라 문화를 합쳐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공자 자신이 아사달족이 세운 은(殷)나라²⁶⁾ 왕실의 후예로서,²⁷⁾ 아사달문화를 가진 족속들을 <군자>(君子)로 불렀으며, <군자국>의 하나인 요서지방의 기자조선(箕子朝鮮)²⁸⁾으로 뗏목을 타고 이민가고 싶어했다는 말이 『논어』 자한편(子罕篇)에 보인다. 기자(箕子)도 은나라 왕실의 후예로서²⁹⁾ 공자의 친족이고, 음양오행을 담

25) 한영우, 2010 『한국선비지성사』, 지식산업사 참고. 고인돌이나 그 뒤의 무덤들은 모두 네모난 땅에서 둥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여 동그라미와 네모를 합쳐서 만들었고, 부처님 무덤인 석굴암도 입구는 네모지고 부처가 앉은 방은 둥글다. 궁궐의 연못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었다. 초가집도 마찬가지로. 모자는 삼국시대에 벼슬아치들이 삼각형으로 된 고깔모자를 사용하여 변(弁) 또는 절풍(折風)으로 불렀는데, 뒤에는 중국식 관복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고깔모자를 선호했다. 의복도 저고리에는 소매나 옷깃에 둥근 선을 애용하고, 치마는 네모지게 만들었다. 음식 가운데 떡의 모습도 원방각 모습을 따랐다.

26) 은나라가 동이족이 세운 국가라는 것은 부사년(傅斯年)의 <이하동서설>(夷夏東西說)을 비롯하여 하버드대학의 양광직(楊光直) 교수 등이 주장한 통설이다.

27) 사마천, 『사기』 공자세가를 보면, 공자는 은나라 탕왕(湯王)의 후손으로 폭군 주왕(紂王)의 숙부였던 현인 미자(微子)의 후손이다.

28) 기자조선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나, 고고학상으로는 문헌상으로 기자조선은 실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기자조선의 위치는 조선후기 여러 학자들이 산해관 부근의 요서지방으로 보았다. 산둥과 요서는 매우 가까워 뗏목을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다.

은 『홍범』(洪範)을 만든 인물이다.

오직 요서, 요동, 한반도에 세워진 <고조선>만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한국인>으로 이어져 왔다. 아사달족은 비록 국가는 서로 달라도 문화는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한국문화의 뿌리는 <범아사달족> 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하도』(河圖)를 보고 괘상(卦象)을 만든 복희(伏羲), 오행사상을 담은 『홍범』(洪範)을 만든 기자(箕子), 전국시대 오행사상을 만든 추연(鄒衍)이 모두 동이족[아사달족]이다.

고조선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바로 아사달족의 <천지인합일>과 <음양오행> 사상이 담긴 귀중한 기록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가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三)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익인간>에 내포된 생명, 곡식, 질병, 선악, 형벌 등 다섯 가지 일은 모두 오행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³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신화야말로 한국인의 원초적인 철학과 종교로서 한국인의 의식주생활과 풍속으로 수천년간 굳어져 내려왔다. 우리 민속 가운데 보이는 <삼신신앙>(三神信仰)이 그것이다.

9. 세종의 삼교통합과 <10학>의 실학

고조선시대에 형성된 원초적 한국문화는 후대인들이 신교(神敎), 선교(仙敎), 도교(道敎)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현대인들은 이를 <무교>(巫敎) 또는 샤머니즘으로 부른다. 삼국시대 이후로는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면서 무교와 접합하여 유불선(儒佛仙)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을 고구려는

29) 기자도 미자(微子), 비간(比干)과 더불어 은나라 말기 삼현(三賢)의 한 사람으로 혈통상으로는 폭군 주왕(紂王)의 숙부였다.

30) 단군신화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건국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삼신(三神: 환인, 환웅, 단군), 3신(三臣: 풍백, 우사, 운사), 천부인(天符印) 3개, 솔도(率徒) 3천, 3위태백, 삼칠일(三七日) 등이 그것이다. <홍익인간> 가운데 <생명>은 오행의 목(木=仁), <곡식>은 토(土=信), <질병>은 화(火=禮), <선악>은 수(水=智), <형벌>은 금(金=義)이다.

〈선인〉(仙人, 先人) 또는 〈선비〉로 부르고, 신라는 〈선랑〉(仙郎) 또는 〈낭도〉(郎徒; 花郎徒), 또는 〈풍류도〉(風流徒) 등으로 불렸다. 후대에는 이들을 〈선비〉로 불렀다. 선비는 본래 유학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³¹⁾

원광(圓光)의 〈세속오계〉나 최치원(崔致遠)이 〈풍류도〉가 삼교(三教)를 통합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효(元曉)와 그 아들 설총(薛聰)은 승려와 유학자로 나누어 보기도 하지만, 원효는 출가 후 삼교를 회통한 〈소성거사〉(小性居士)로 자처했고, 설총도 삼교를 회통한 사상가였다.³²⁾ 그 두 사람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교나 유교나 불교가 서로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융합된 것이다. 선교의 〈홍익인간〉은 불교의 자비(慈悲), 금욕(禁慾),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수양론과 비슷하고, 도교의 금욕과 불로장수 사상도 〈홍익인간〉과 다를 것이 없다. 또 유교의 인(仁), 충효(忠孝),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도 무교의 〈홍익인간〉과 통한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유교는 낯선 외래문화가 아니었다.

삼국은 이렇듯 한층 거대해진 삼교통합 문화를 가지고 동아시아세계를 호령했는데, 그 전통은 그대로 고려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의 진보적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삼교를 통합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승려이든 유학자이든 〈거사〉(居士)를 자칭하는 이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인종 때 묘청의 일당이었던 유학자 윤언이(尹彦頤)는 금강거사(金剛居士), 평생 청평산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보낸 이자현(李資賢)은 청평거사(淸平居士), 무신집권기 이규보(李奎報)는 백운거사(白雲居士), 충열왕 때 이승휴(李承休)는 동안거사(動安居士), 공민왕 때 신돈(辛旽)은 청한거사(淸閑居士)를 자호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一然)은 거사를 칭하지는 않았으나 삼교회통의 사상을 가지고 고대문화를 정리했기에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거사들은 모두 삼교통합 사상가들이다.

31) 최세진(崔世珍)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사〉(士)를 〈도삿사〉로 적고 있다. 여기서 〈도삿〉은 조사(朝士) 즉 벼슬아치를 가리킨다. 유학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가면서 〈사〉(士)는 유자(儒者)를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

32) 원효 사상의 핵심인 〈화쟁론〉(和諍論)은 단순히 다양한 불교 교리를 통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불선을 통합한다는 기능도 가졌을 것이다. 원효는 출신이 서당(誓幢)으로 낭도(郎徒)에 속한다. 아들 설총은 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유학만을 한 사람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는 학자나 승려들뿐 아니라 삼교를 회통한 민중단체들이 있었다. 이들을 향도(香徒), 거사패(居士牌), 두레패[社長牌] 등으로 불렀는데, 평소에는 농사일이나 국가에 대한 부역, 장례식 등을 함께 도와주고, 수시로 유불선이 합쳐진 종교행사와 축제를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 또 유사시에는 군대로 나가거나 스스로 민병대를 조직하여 선봉에 서서 싸우는 용맹한 전사(戰士)들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고구려의 <선비>나 신라의 <화랑도> 유풍을 그대로 이어갔다.

고려가 요(遼), 금(金), 몽고와 싸울 때 승리를 이끈 주역들도 이들이었다. 고려 인종 때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이는 <재가화상>(在家和尚)³³⁾이 바로 이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병(義兵)의 기원이 이들이고, 민란(民亂)의 주역도 이들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시대 전통은 그대로 이어졌다. 우선 태조 이성계부터 삼교를 회통하여 스스로 <송헌거사>(松軒居士)로 자호했고, 그 전통은 태종, 세종, 세조때까지 강인하게 연면히 이어졌다. 일부 교조적인 성리학자들이 나와서 삼교회통을 이단(異端)으로 보기도 했지만, 진보적인 임금이나 유학자들은 한결같이 삼교를 통합하고 있었다. 향도, 거사패, 두레패들도 여전히 성행했는데, 보수적인 유자들은 이들을 미신단체로 보고 그 억압을 주장했으나 진보적

33) 『고려도경』에 보이는 <재가화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재가화상은 가사(袈裟)를 입지 않고, 계율(戒律)도 없으며, 흰 모시로 된 좁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검은 띠를 둘렀다. 맨발로 다니는데 간혹 구멍 뚫린 신발을 신은 자도 있다. 스스로 거실(居室)을 만들고 처자를 거느리고 산다. 그들은 관청에서 기물(器物)을 저서 나르고, 도로를 닦고 개울을 치고, 성실(城室)을 수리하기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한다. 변방에 전란이 생기면 단결하여 나가서 싸우는데, 비록 뛰는 모습이 불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용맹하게 돌진한다. 군사로 나갈 때에는 스스로 식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이 들지 않고도 능히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 듣건대 거란이 고려에 패한 것도 바로 이들의 힘이었다고 한다. 사실은 이들은 형벌을 받은 복역인(服役人)들이다. 동이(東夷) 사람들은 머리를 깎은 사람들을 화상(和尚)이라고 부른다.” 이 기록을 보면 재가화상을 형벌을 받은 죄수로 본 것인데, 죄수가 어떻게 처자를 거느리고 집에서 살며,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여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는가? 이들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서경이 죄수로 본 듯하다. 관노(官奴)들이 본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고 머리를 깎았으므로 혹시 이들을 관노로 볼 수도 있으나, 관노를 <화상>으로 불렀을지는 의문이고, 관노들이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여 전쟁터에 나갔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평민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던 무리들로 보인다.

유신들이나 임금은 이들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았다.

태조 이래의 가학(家學)을 계승한 세종은 삼교통합문화를 한 단계 높게 재창조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백성을 통합시키는데 성공했다. 세종이 불교를 좋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향도, 거사패, 두레패, 둔갑술(遁甲術), 점복(占卜), 풍수지리 등 민중공동체와 민중신앙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믿지도 않았지만 전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히 민중공동체는 신분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 신분평등성이 매우 높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은 바로 <홍익인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국토와 자연환경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그에 적응하는 농법, 의약법, 음악, 병법 등을 키워온 것도 그들이었다. 그래서 세종은 민중문화를 흡수하여 재창조한 것이다.

원방각문화(圓方角文化)도 민중 사이에 뿌리박고 내려온 것으로, 세종은 이를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응용한 것이다. 그러니 유교 경전만 읽은 유신(儒臣)들이 어찌 <훈민정음>을 제대로 해설할 수가 있었겠는가?

세종이 만약 궁중에서 태어나 종학(宗學)이나 시강원(侍講院)에서 유교교육만 받고 자랐다면, 이런 민간풍속을 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이 태어날 때 태종은 임금이 아니었으므로 출생후 바로 신하 집에서 양육되었고, 김토(金土)라는 이름도 없는 의관(醫官)에게 교육을 받았으며, 세자가 아닌데다 종학(宗學)도 아직 없었으므로 체계적인 경학공부를 받지 못했다. 다만 독학으로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성리서(性理書)들을 읽었을 뿐이다. 이런 방목적(放牧的)인 성장 및 교육환경이 도리어 세종이 사상적으로 개방성을 띠고 백성들과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이다.

세종의 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민중문화를 집대성한 것들이다. 우선 세종은 철저한 <풍토문화론자>(風土文化論者)였다. 우리 문화는 우리의 국토와 자연환경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왔으므로 미래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마치 <신토불이>(身土不二) 정신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농업 찾기>[農事直說], <우리 음악 찾기>[雅樂譜], <우리 시간 찾기>[天文學과 天文器具], <우리 의약 찾기>[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 등], <우리 역사 찾기>[東國世年歌, 高麗史, 고조선 및 삼국시조 제사], <우리 영토 찾기>[4군6진 개척, 대마도 정벌], <우리 종교 찾기>[민간신앙] 등으로 전개되어 수많은 출판물과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세종이 외래문화를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다. 특히 과학기술면에서는 선진적인 중국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통문화에 접목시켜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재창조했다. 곧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책이다.

세종은 또 <10학>(十學)으로 불리는 실용학문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1)유학(儒學), (2)무학(武學), (3)이학(吏學: 외교문서), (4)자학(字學: 문자학), (5)역학(譯學), (6)음양풍수학(陰陽風水學), (7)산학(算學), (8)율학(律學), (9)화학(畵學), (10)악학(樂學)을 말한다. 유학은 10학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실용적인 기술학들이다.

다만, 세종이 장려한 유학(儒學)은 경학(經學)이 아니라 사학(史學)이었다. 사학이 경학보다 한층 실용성이 있다고 보았다. 과거시험에서도 <강경>(講經)을 <제술>(製述)로 바꾸었고, 경연에서도 신하들은 경서(經書) 읽기를 권장했으나 세종은 도리어 사서(史書)나 기술학 책을 읽기를 좋아했다. 음악서인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경연에서 읽었다. 경학자들은 사대명분(事大名分)이나 상하존비(上下尊卑)의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여겨 세종은 이들을 마음속으로 멀리했다.

실용적인 <10학>이 물질적으로 국력신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정신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은 삼교통합이었다.

<훈민정음>도 위와 같은 <풍토문화론>과 <실용학>을 바탕으로 재창조된 것이다. “풍토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면 말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문자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세종의 소신이었다. 그 정신이 신숙주(申叔舟)의 <동국정운>(東國正韻) 서문과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으로 표현되었다.

세종은 백성의 민중문화에 친숙했을 뿐 아니라 백성의 아픔에 대해서도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는데 큰 업적을 냈다. 예를 들면, 농지와 농업발진으로 백성의 의식주를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인권을 신장시켜 노비, 여성, 서얼, 죄수, 결손가정, 이름없는 평민 등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영토를

넓혀주고, 문자까지 만들어주었다. 특히 노비와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극했다. 그래서 세종을 성군(聖君)으로 추앙한 것이다.³⁴⁾

이런 정책들이 성리학을 배워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유불선통합 문화에 담긴 <평등사상>과 <홍익인간>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종은 사대명분(事大名分)과 상하귀천(上下貴賤)의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경학(經學)을 가장 싫어했던 임금이었음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훈민정음>의 문자구조; 원방각(圓方角) 응용

<훈민정음>의 문자구조는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는 ○□△ 문화에서 나왔다고 앞에서 말했다. 이는 나의 사견(私見)이지만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8자의 초성(初聲)은 ○□△에서 획을 보태거나 빼어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서 벗어난 글자는 하나도 없다. 다만, 중성(中聲)은 ○을 생략하여 둥근 점[·]을 만들고, □을 생략하여 지평선[—]을 만들고, △을 생략하여 사람이 서 있는 모습[1]을 만들었다고 본다.

다음에 중성(中聲)에서 밝은 중성과 어두운 중성을 만들 필요에서 땅[—]과 사람[1]에다 하늘 곧 태양[·]을 연결시켰다. 땅 위에 태양이 있으면[⊔] 밝은 중성이 되고, 땅 아래에 태양이 있으면[⊕] 어두운 중성이 된다. 또 사람의 동쪽에 태양이 있으면[⊡] 밝은 중성이 되고,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으면[⊢] 어두운 중성이 된다. 그러나 『해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³⁵⁾

한편, <훈민정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종성(終聲: 받침글)을 어떻게 붙이느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는 17개의 초성을 모두 종성으

34) 세종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은 한영우, 2019 앞의 책 참고.

35) 『해례』에서는 중성(中聲)이 천지인을 상징하는 도형이라고 하면서 “⊡와 ⊢는 천지의 쓰임이 사람을 만나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와 ⊕는 하늘이 땅과 만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고, “양모음은 하늘에서 나와 양모음이 되고, 음모음은 땅에서 나와 음모음이 되었다”고 했다.

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를 고민하다가 <ㄱㄴㄷㄹㅁㅂㅅㅇ> 등 8자만 중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뜻이 같은 말이 어미가 변화할 때 중성을 붙이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걷다>가 <걸어가다>로 변할 때 중성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 <걷다>를 <것다>로 할 것인지 <걷다>로 할 것인지, 또 <걸어가다>를 <거러가다>로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문장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군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나 풀지 못하자 정의공주(貞懿公主)에게 맡겼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물론 중성문제는 그때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받침>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나 지금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끝으로 <훈민정음>과 오행(五行)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28자가 ○□△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28자 가운데 <ㄱㄴㅁㅂㅅㅇ>의 다섯 글자는 오행(五行)의 모습과도 닮았다. <ㄱ>은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린 나무 모습[木=仁], ㄴ은 땅위로 타오르는 불꽃 모습[火=禮], ㅁ은 땅 모습[土=信], ㅂ은 이빨이나 날카로운 무기 모습[金=義], ㅇ은 물방울 모습[水=智]을 닮았다. 그런데 『해례』에서는 이와 다소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³⁶⁾

위와 같은 해석은 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앞으로 학계의 질정을 바라고 있다. 다만, 『해례』의 설명이나 현재 학계의 연구성과가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연구가 계속 나와야 할 것이다.

11. 나가면서

최근 우리 학계는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지나치게 미시적 접근법이 유행하고

36) 『해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ㄱ: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모습, 또는 나무소리

ㄴ: 혀가 입 천정에 붙어 있는 모습, 또는 불꽃 모습

ㅁ: 입모습, 또는 땅 모습

ㅂ: 이빨, 또는 날카로운 무기 모습

ㅇ: 목구멍, 또는 물방울 모습

있는 듯하다. 그런 접근법의 장점도 없지 않으나,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점도 적지 않다. 모든 사건은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도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면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쉽다.

세종, 집현전,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집현전이나 훈민정음은 세종이 사상과 정책이 지닌 거대한 거미줄 속에 들어가서 보아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전통문화를 모두 흡수하고, 여기에 중국문화의 정수까지 접목시켜 만든 사상과 학문은 말하자면 수많은 씨줄과 날줄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거미줄과 같다. 그 거미줄의 스케일은 바다처럼 넓고 깊다. 세종은 유학이나 성리학 하나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임금이 결코 아니다.

이 글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종과 집현전, 훈민정음의 실체를 주마간산격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세밀한 설명은 필자의 저서 『세종평전: 대왕의 진실과 비밀』(경세원, 2019)에서 다룬 것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제어 : 집현전, 훈민정음, 10학, 삼교통합, 천지인합일사상

〈Abstract〉

The Jiphyeonjeon, Royal Research Institute and King Sejong

Han young-woo *

Jiphyeonjeon(集賢殿), a royal policy research institute reinstated by King Sejong, contributed as a central institution, especially for innovating scholarship and scientific technology in the Sejong era. King Sejong promoted ten schools(十學) - *yu-hak*(儒學; Confucianism), *mu-hak*(武學; military studies), *i-hak*(吏學; diplomatic documents), *ja-hak*(字學; studies of letters, *yeok-hak*(譯學; interpreting study), *eum-yang-pung-su-hak*(陰陽風水學; astronomy and geomancy), *san-hak*(算學; mathematics), *hwa-hak*(畫學; paintings), *ak-hak*(樂學; music studies). In regard to Confucianism, *sa-hak*(史學; history) was more respected than *gyeong-hak*(經學; philosophy and ethics) focusing on ethical aspects. Therefore, all ten schools were practical learnings. Medical science, one of the practical learnings, was added to the ten schools. *Jiphyeonjeon* contributed the most to the compilation of books on these practical learnings.

Although *Jiphyeonjeon* did not directly help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it actively contributed to work explaining the principles of *Hunminjeongeum* and annotating in Korean. *Hunminjeongeum* was created by King Sejong with the help of the prince and princess, and the principle of its invention was an application of the *eum-yang* idea of Korean traditional *yeok-hak*(易學) and the *won-bang-gak*(圓方角; shape of round, square, triangle) figure symbolizing *cheon-ji-in*(天地人; heaven, earth, human). *Taegeukgi*, a flag of the Joseon Dynasty, and *Hunminjeongeum* have little to do with Neo-Confucianism from the Song Dynasty. It is based on the idea of *yeok*(易; philosophy of change) that has been handed down since Gojoseon.

King Sejong should be re-examined as an integrated thinker and a practical scholar

* Emeritus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achieved national unity with an inclusiveness that encompasses Confucianism, Buddhism, and folk beliefs.

Key Words : King Sejong, *Jiphyeonjeon*, *Hunminjeongeum*, ten schools(十學), the integration of Confucianism-Buddhism-folk belief, integration of heaven-earth-human